

흑인 소년 삼미

귀도 스타스 지음 / 김홍래 옮김
서광사 / A5신 / 126면 / 3000원

활기있고 아름다운 아메리카대륙의 흑인 소년 삼미는 비록 구두를 닦는 일을 하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다.

또래의 백인 친구들이 그를 감동이라고 놀리고 때리지만 그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사는 마을에 왜 자신과 가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날 동물박물관에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삼미는 검은 피부와 흰 피부 모두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깨닫는다.

저자의 다른 단편 「피암페타」 「춤 피곤한 로마의 성탄절」 「아스트리드의 꿈」 등 4편이 더 수록되어 있다.

산수보다 쉬운 수학 (1·2)

강성오 외 지음
사계절 / A5신 / 각 184, 220면 / 각 4000원

새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산수'가 '수학'으로 바뀜과 동시에 사고력 중심의 영역별, 주제별로 편제한 책.

원리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사고과정상의 연관성과 내용상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산영역, 도형영역, 측도와 관계의 영역으로 나뉘어 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수와 연산을 이해하도록 하며, 2장에서는 기하를 도형의 차원에서 배우도록 유도하고, 함수, 확률 등은 3장 관계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등 각 주제를 만화로 읽기 쉽도록 꾸몄다.

승구의 일기

조승구 지음
예림당 / A5신 / 190면 / 4000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두 달간이나 사경을 헤메던 소년이 '나는 공부 못하는 돌이지만 부딪히면 불꽃이 생기는 부싷돌'이라며 자신의 불행을 희망과 사랑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세상보기를 적은 일기 모음집.

아빠 주위에 파리 몇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담배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도 오늘처럼 모르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한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세다가 날이 좀 쌀쌀해져 건디기 힘들다고 백스물일곱만에 방에 들어오는 소년의 감수성이 읽는 이로 하여금 애잔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야기 열하일기

이원하 엮음
큰산 / A5신 / 230면 / 3800원

연암 박지원의 중국기행기 「열하일기」를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고 추려서 엮은 책.

조선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 가면서 신문물을 접하는 박지원이 청나라의 문화·정치·경제 등 색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의 생활상이 박지원의 해박한 지식, 자유로운 사상과 어울려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작의 방대한 분량에 비해 내용이 쉽고 학습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추려 그 당시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두 나라의 역사와 풍속, 지리, 문화 등을 비교하기에 좋게 편집했다.



붉은 머리 사나이를 찾아라

조르주 심농 지음 /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고려원미디어 / A5신 / 204면 / 3500원

키가 작고 귀엽게 생겨서 꼬마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장 도랭에게 수면제를 받아간 젊은이의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멋지게 해결해 내면서 꼬마 의사는 탐정의 길에 들어선다.

파리 한복판에서 살해당한 아름다운 아가씨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나는 억울해요」, 태어난 순간부터 주변의 가족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슬픈 운명을 가진 노인사 이야기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의 비밀을 찾아내는 「위기의 아가씨를 구하라」 등이 수록됐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쉽고 재미있게 꾸며져 있다.

호랑이도 살고 빛쟁이도 살고

순춘익 엮음
창작과비평사 / A5신 / 212면 / 3500원

옛이야기 속에는 조상의 뜻과 지혜가 담겨 있으며 옛 풍속과 아름다운 우리말이 많이 담겨 있기에 세월이 흘러도 오래오래 기억되는 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긴긴 겨울밤 군밤이나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들었던 호랑이와 사냥꾼, 선녀와 나무꾼, 도깨비와 바보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전래 동화집.

늘 착하고 점잖은 고양이를 놀려대던 쥐들을 어느날 고양이가 피를 내어 한꺼번에 혼내준다는 「베감투 쓴 고양이」, 효성이 지극한 막내가 도깨비에게 복을 받는 「부자가 된 막내아들」 등 50여편의 우리 전래 동화가 실려 있다.

소년 봉신방 (전5권)

김동균 지음
웅진출판사 / A5신 / 각 240면 내외 / 각 4000원

은나라의 한 지역 수비대장의 아들로 태어난 무동이 폭군 주왕에 의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역성혁명에 참가한다는 내용을 지닌 어린이 대하 역사소설이다.

아동출판물의 대부분이 창작동화나 명작류의 다이제스트, 혹은 만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어린이 소설로서 시도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며, 중국 고대신화인 「나타의 신화」와 명나라 허중림의 소설 「봉신연의」를 바탕으로 하여 씌어져 풍부한 상상력이 드러나 보인다. 만화작가 홍금보의 삽화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을 재미있게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도전! 과학탐구

존 캐시디 과학탐구관 지음 / 박승재 감수
성인문화사 / A5신 / 100면 / 15,000원

눈으로만 읽고 외우는 학습방법에 익숙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에 딸린 여러가지 실험도구로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과학학습을 하게 한다.

자석이 자석을 만들고, 한천배양기로 직접 젤을 만들어 곰팡이와 박테리아세계로의 탐험을 할 수도 있고, 회절격자를 통해 빛은 왜 아름다운가, 거울 속의 수수께끼와 내 눈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등의 문제들이 실험을 통해 밝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과학이 딱딱하고 지루한 과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꼬마시인의 노래

전우각 지음
공동체 / A5신 / 186면 / 3500원

어린이들만이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꿈과 모험의 세계를 그려낸 15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창작동화집.

애완동물 시장에 팔리게 되어 여러가지 모험을 겪지만 끝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햄스터의 모습을 그린 「햄스터의 탈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할머니 오시는 날」, 재미있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철공소 결투」 「술이 넘치는 계곡」 「오락실 삼국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린 「강아지풀의 약속」 「꼬마시인의 소나무」 등이 예쁜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진흙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불광출판부 / A5신 / 각 244, 236면 / 각 3500원

신라 중기 순교자 이차돈의 생애를 다룬 「하얀 무지개」, 불교가 대중속에 자리를 잡고 진정한 불법을 펴기위해 거리로 나선 성사 원효의 일생을 다룬 「진흙 속에 피는 연꽃」 등 불교 위인들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다.

하얀 무지개빛 피를 뿌리며 산화해 간 이차돈의 죽음과 거지도 되었다가 땅꾼도 되었다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준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삽화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원숭이 꽃신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오늘 / A5신 / 186면 / 3800원

오소리가 준 꽃신에 길들여져 꽃신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된 원숭이가 꽃신을 얻기 위해 오소리의 종이 되고 만다는 정휘창의 「원숭이 꽃신」, 일본말을 가르치고 싸움도 일본말로 하라고 호통치더니 미국 군인들이 활개치고 다니자 미국말을 배우고 침이 마르도록 미국을 칭찬한다는 체만식의 「이상한 선생님」 등 어린이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동화선집.

그외에도 리동섭의 「한 길로 간다」, 이원수의 「장난감과 토끼 삼남매」, 강정훈의 「별령코 할아버지」, 손춘익의 「둘사자 이야기」, 마해송의 「토끼와 원숭이」 「떡배 단배」가 실려있다.

과학나라의 비밀

김수영 엮음
우진출판 / A5신 / 188면 / 3500원

‘45억년 전의 지구의 하루 시간은 5시간이었으며 50억년이 지나면 지구의 하루는 44시간이 될 것이며, 굴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손이 노랗게 변하고, 과거로의 여행은 가능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에 적당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른들에게나 궁금하지만 하던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답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묶었다.

지구나 별이 한결같이 둥근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경찰이 필요없는 별자동차, 나이가가라폭포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바나나는 원래 씨가 없었을까 등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활속의 수수께끼를 담고 있다.

마루벌

신사고! 신감각!

토탈 에디터리얼 디자인

저희 마루벌은 단순히 예쁜 인쇄 미디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철저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의뢰된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포된 디자인의 인쇄 미디어 다운 인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마루벌의 의지는 고객이 의뢰한 에디터리얼 디자인의 전과정· 기획·표지·편집·윤문·교열·교정·홍보·광고기획·식자·제판·인쇄·코팅·제본에 이르기 까지 저희 마루벌의 노하우와 감각·치밀성과·정확성으로 몇몇 사람이 선호하는 인쇄 미디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쇄 미디어로 완벽하게 꾸며 드립니다.

인쇄 미디어의 모든 것.
신사고·신감각의
마루벌 전문인력과 협의 하십시오.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
표지·본문·광고·카드록 등 마케팅 전략에 의한 감각적·차별적 디자인!!	단행본·사보·잡지의 세밀한 편집!
· 윤문·교열·교정 완벽한 문장구성·	· 식자·출력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매김토시 완벽 출력서비스!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창조!	· 제판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원색 제판!
· 인쇄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 고품질 인쇄!	· 기획 원고 기획·마케팅·편집계획·광고 등 종합 컨설턴트
· 제작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제본!	

만족이 있습니다

마루벌

Tel: 701-2391(대표)
Fax: 701-239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